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0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0차 차관회의에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올 하반기 적극행정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실천과제는 △생활안전강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환경일자리 창출 등 4가지 분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활안전 강화) 화학물질·제품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토록 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유발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한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역별 및 맞춤형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고 핵심배출원의 집중 감축을 비롯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위기관리를 강화한다.

(신기후체제 이행체계 구축)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 보급하여 환경 개선과 관련 산업을 동시에 육성한다.

(환경일자리 창출) 찾아가는 서비스로 환경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소 환경기업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환경일 자리를 창출한다.

환경부는 올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정적인 소독제 공급, 생활폐기물 총력 대응, 기업의 부담 완화 등에 힘써왔다.

특히 이번 우수사례 발표에서 그간 환경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 외에도 국민 건강과 경제의 상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① 불법 어린이용품으로부터 아동건강 보호

첫 번째 우수사례는 영세업체의 어린이용품 수입·제작·판매 증가에 따라 부처 협업으로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꼼꼼히 검증하여 조치한 사례다.

환경부는 약 5,000개에 이르는 어린이용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환경보건법' 환경안전기준을 위반한 16개 업체를 확인하여 조치했다.

* 3개 업체 고발, 1개 업체 회수권고, 7개 업체 관할 지방청에서 조사 중

또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에 알려 17개사, 26개 위반용품에 대해 회수(리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협업은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서는 부처 칸막이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준 사례다.

:
(이하 생략)

출처 환경부